

농진청, 지구촌 빈곤극복 앞장

농촌진흥청이 지구촌의 빈곤 완화를 위해 글로벌 농업기술협력 확대방안을 내놴다. 서남아시아, 아프리카를 비롯해 세계 10개국에 해외농업기술개발(KOPIA, 코피아)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올해 설립 50돌을 맞이한 국제미작연구소(IRRI)와의 특별협력 과제 수행, 지난해 농진청이 주도해 설립한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이니셔티브(AFACI, 아파시)’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빈곤퇴치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빈곤퇴치 로드맵’으로 알려진 농진청의 국제농업기술협력방안이 이목을 끌고 있다.

〈자료: 농업인신문 4.9〉

농어촌공동체회사 3000곳 육성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인 ‘농어촌 공동체회사’가 2015년까지 3000곳 육성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지역발전과 현안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농어촌 공동체회사’ 3000개소를 오는 2015년까지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공동체회사’는 지역 주민 또는 귀촌 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업경영방식을 접목,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소득창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이다.

〈자료: 한국농어민신문 4.22〉

‘한국 등 4개국+빌 게이츠’ G20 농업·식량안보기금

“북한은 불투명한 나라... 쌀 기금 지원받기 힘들 것”

한국·미국·중국을 비롯한 20개 선진국과 신흥국 모임인 G20이 저개발국의 식량난 해소와 농업 지원을 위해 8억8000만달러 규모의 ‘농업·식량안보기금’을 2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출범시켰다. 우리나라는 5000만달러를 출연, 미국(4억7500만달러), 캐나다(2억3000만달러), 스페인(9500만달러) 등 4개국 정부, 빌 게이츠(Gates)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설립한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3000만달러)과 함께 창설 멤버로 참여했다.

〈자료: 조선일보 4.23〉

“우리 기술로 완공 ... 방조제 수출 발판 될 것”

“대한민국 희망의 날개인 새만금은 이제 세계를 향해 날아오르게 됩니다.”

방조제 공사 시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홍문표 사장은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꾸는 대역사가 19년 만에 마침표를 찍고, 글로벌 명품 도시를 만드는 2단계 사업이 본격화된다”고 말했다.

- 세계적인 관광 명품으로 만든다는데.

“새만금 방조제는 세계 최장에다 서해의 경관 등 천혜의 조건을 갖췄다. 다른 방조제와 달리 바다·호수 양측을 조망하면서 수려한 경관을 바라볼 수 있다. 휴식과 관광을 겸할 수 있는 세계적인 명소로 살려야 한다. 전체 방조제 주변에 휴양과 놀이·숙박·생태체험시설을 조성해 관광객이 묵어 가는 곳으로 만들겠다.”

〈자료: 중앙일보 4.26〉

중동북 3성 중·단립종 쌀 ‘국내 위협’

중국 동북3성의 중·단립종 쌀이 2014년 쌀시장

관세화이후 국내 쌀 산업의 최대 위협요소로 대두 될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국내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중심으로 한 고품질 쌀 계열화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지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근 정책연구보고서 '중국 동북 3성의 중·단립종 쌀산업 구조변화와 생산계열화 실태 조사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대한민국 쌀 수출량 비중이 2006년 11.3%에서 2009년 28.6%로 우리나라가 중국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 동북3성의 대한민국 쌀 수출물량은 2002년 7만 8000톤에서 2009년 16만 3400톤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농수축산 4.26〉

가축유전자원 보존은 녹색성장의 구심점이다

지난 1월 2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전망 2010'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금년도 농업생산액은 전년에 비해 0.8%가 증가한 39조3220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축산업 생산액이 농업 총생산액의 39.4%인 15조4600억원으로 전년에 이어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주요 축산물 생산액은 10대 농업생산물에 대다수 포함될 것이다. 앞으로 한국의 농업은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농업도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패러다임(paradigm)도 변해야 한다. 농업의 구조, 정책, 투자액, 산업인력, 산업적 중요도 등 모든 분야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선진국의 척도가 될 국가자원의 관리에 대한 자세의 변화가 필요하다.

〈자료: 농수축산 4.26〉

일조량 부족도 농업재해로 인정

일조량부족으로 인한 농업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는 일조량부족을 농어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농가에 총 3천4백67억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19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복구비 1천5백67억원을 지원하고 이와 함께 재해대책경영비 1천9백억원을 특별융자 지원키로 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비용은 다시 파종하는데 들어가는 종묘비용인 대파비용, 농약비용, 생계유지비(쌀 5가마 비용), 고등학생학자금 면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이지만 농민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 한국농정신문 4.26〉

정부-전문가 '4대강 논쟁' 평행선

4대강 사업을 두고 대립중인 정부의 책임자들과 시민단체·학계의 대표적 전문가들이 천주교 마산교구가 연 설명회 자리에 마주 앉았다. 하지만 양쪽은 물 부족 여부와 수질 오염 등 근본적 쟁점에 대한 큰 의견 차이를 좁혀줄 수 없었다.

천주교 마산교구는 27일 경남 마산시 천주교 마산교구청 강당에서 신부와 수녀 등 100여명의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4대강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4대강 사업을 총괄하는 심명필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과 이재현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 정부의 책임자와 김정욱 대한하천학회장(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박창근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장(관동대 교수) 등 4대강 반대운동의 대표적 학자들이 참석했다.

〈자료: 한겨레 21 4.27〉

새만금 날개 펴다, '첨단농촌 에코빌리지' 미래 농업관광 1번지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앞 새만금 간척지에 울긋불긋 봄꽃들이 피어 갯바람에 살랑인다. 4만㎡의 구 근화훼원으로 작년 11월 심은 튤립 아이리스 히아신스 수선화 등 100만 그루가 꽃봉우리를 피워내 도시민들을 부른다. 창제리 앞 갯벌은 2006년 4월 새만금 방조제 끝막이와 함께 바닷물이 물러났다. 이곳에선 한국 농어촌공사가 시범 제염 및 농지기 반조성 사업을 벌이고 있고, 농촌진흥청도 사료작물을 시험 재배하고 있다. 한국 쌀농사 1번지인 김제는 광활 들판 너머 새만금으로 땅을 넓힌다. 새만금 내부 방수제도 연내 이곳에서 착공돼 2020년까지 첨단 농촌과 농촌도시가 들어선다. 수출농업기지과 자연순환형 유기농단지, 농산업클러스터, 바이오에너지생산단지 등은 저탄소 녹색농업의 모델이자 김제의 새 관광자원이 된다. 유기 낙농·한우단지, 첨단유리온실, 에코 빌리지(eco-village)들은 방수제 및 연결도로, 자전거도로로 대형 수목원과 생태공원까지 연결돼 농업생태관광의 새 시대를 연다.

〈자료: 조선일보 4.27〉

새만금 방조제 33.9km 위용 드러내

공사 20년 만에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 새만금방조제는 전체 길이가 33.9km로 세계에서 가장 길다.

세계 최장 ... 20년 대역사 완료 ... 농업 등 8개 용지별로 개발예정

새만금방조제가 20년간의 대역사를 끝내고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새만금방조제의 중간인 전북 군산 신시도 일원에서 준공식을 갖고 33.9km에 달하는 세계 최장 방조제의 완성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전북 군산 비응도에서 부안 변산반도까지 서해를 가로지르는 새만금방조제가 일반에게 개방됐다. 지난 1991년 11월 착공된 새만금방조제는 모두 2조9,000억원이 투입된 국내 최대의 토목공사로, 연간 237만명의 인력과 91만대의 건설장비가 동원됐고 방조제 건설에는 모두 1억2,300만㎡의 토사가 투입됐다. 이는 경부고속도로 4차선을 13m 높이로 쌓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자료: 농민신문 4.28〉

이상기후에 농업취업자 최악 감소

봄철 이상저온과 일조량 감소로 농림어업 취업자 숫자가 두자릿수 감소율을 보이며 사상 최저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농림어업 취업자는 123만5천명으로 작년 1분기(139만8천명)보다 11.7%(16만3천명) 줄었다.

분기별 농림어업 취업자가 120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에는 2008년 1분기(138만4천명)가 가장 적었다.

또 이번 감소율은 산업분류 체계가 바뀐 2004년 이후 최악으로, 종전 최저치인 작년 4분기(-6.9%)의 갑절에 달했다.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종전 산업분류의 농림어업 취업자 증감까지 따져보면 1991년 4분기(-14.0%) 이후 최악의 감소율이다.

〈자료: 매일경제 4.29〉

새만금 간척지 어떻게 개발되나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됨에 따라 새만금간척지 개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조제 공사 완공으로 서울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4만100ha의 간척지가 새로 생겼다.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정부가 지난 1월28일 발표한 '새만금 내부 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 실천계획'에 따라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새만금간척지는 크게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레저용지 ▲국제업무용지 ▲생태·환경용지 ▲과학·연구용지 ▲신·재생에너지용지 ▲도시용지 등 8개 용지로 구분해 개발된다.

〈자료: 농민신문 4.30〉

'도시농업 활성화' 전국 네트워크 구축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농촌진흥청·산림청과 각 시·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농업 활성화 전국 협의회'를 열고 농업 관련 기관 외에 중앙부처·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산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간과 식물·환경이 조화로운 도시농업을 보급·지원하는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아동·청소년·대학생·성인·노령인구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기로 했다.

〈자료: 농민신문 4.30〉

이상기후, 국가 재난 수준

40년만에 가장 적은 일조량, 반면 가장 많은 강수량, 또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03년만에 가장 낮은 기온, 농작물이 온전할 리 없다. 지금쯤 시설을 걷고 노지에서 봄바람 타고 만개를 꿈꿔야 할 농작물이 죽어나고 있다. 농식품부는 피해면적이 1만4천ha(4월19일 현재)라고 발표했지만, 전국에서 쏟아지는 농민들의 의견을 엿듣자면 빙산의 일각이다. 피해작물도 수박, 딸기 등의 시설재배작물부터 밭작물, 과수, 임산물까지 총체적 전면조사가 불가피한 지경이다.

〈자료: 농업인 신문 4.30〉

"새만금은 세계로 뻗는 경제고속도로"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새만금 방조제는 단순한 방조제가 아니라 동북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 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고속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통령은 이날 새만금 방조제 준공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새만금이 세계로 뻗어 나가려면 여러분 생각도 지역의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야 한다"며 "지역 한계를 벗어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새만금의 미래도 활짝 열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은 4대강 사업과 더불어 대한민국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우리의 또 다른 노력"이라며 "4대강 사업이 죽어 가는 강을 살리는 것이라면 새만금 사업은 대한민국 최초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녹색도시를 건설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농민신문 4.30〉